시민속으로 2017 / 12월 1주차

■ 연구원 주요일정

○ 12월 04일(月) : 주간회의(11시)

○ 12월 07일(木) : 의병사 실무회의(16시)

○ 12월 08일(金) : 송년회(18시 30분)

■ 연구원 소식

○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 방문 (11월 30일)

: 11월 30일에 디아스포라 강연과 고전학연구소 주최 콜로키움을 위해 한국을 찾으신 노르웨이 오슬로대의 박노자 교수께서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께서 연구원 공간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차별없는 세상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말고 진행해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한국고전번역원 권역별거점연구소 현장 실사 (11월 30일)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내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 참여 거점연구소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의 컨소시엄 기관으로 함께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 본 실사는 권역별거점연구소의 운영 실태 파악, 사업수행 역량 파악, 2018년도 운영안의 설명 및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사는 2018년 권역별 거점연구소 대형거점연구소 선정 심사를 위한 방문목적도 있었습니다. 대형연구소로 지정될 경우 증가되는 사업총량은 우리 연구원과 한국고전학연구소의 사업역량 향상과 사회적시민권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12월 13일 발표될 선정결과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 2017년 연구원 "송년회" 안내

: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2017년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상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정의가 세워짐을 목격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올해 가장 감명깊게 읽은 도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한 회원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시간 : 2017.12.08(金) 18시 30분 -

- 장소 : 전주 송천동 하가지구 놀부보쌈 전주덕진점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5, 2층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81-4)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디아스포라 강좌 안내"

- 주 제 : Cultural Identity in movement / 강 사 : 박새록(칠레 예술가)
- 장 소 : 전주대학교 예술관 아트홀 / 시 간 : 2017년 12월 07일(목) 16시~18시

: 디아스포라 강좌는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생은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오셔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자소개

이백(李白, 701-762).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青蓮)이다. 어려서부터 시서(時書)에 통하여 민산(岷山)에 숨어 종횡책사(縱橫策士)의 술(術)을 즐겼으며, 후일 조래산(徂徠山)에 살며, 술을 즐기어 6일(六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안사(安史)의 난에 양주(楊州) 절도대사의 막하에 있다가 모반(謀反)에 연좌되어 야랑(夜郎)지방으로 귀양갔다가 후일 사면되었고, 62세로 선주(宣州)에서 사망했다. 시인이 배출된 현종(玄宗) 시대에 있어서 두보(杜甫)와 더불어 시선의 일컬음을 받았다.

▌작　품

子夜吳歌(第3首)	자야오가(제3수)
長安一片月(장안일편월)	장안의 조각달
萬戶擣衣聲(만호도의성)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秋風吹不盡(추풍취부진)	가을바람 끝없이 불어
總是玉關情(총시옥관정)	모두가 옥관 향한 그리움으로
何日平胡虜(하일평호로)	어느날에나 오랑캐 평정하고
良人罷遠征(양인파원정)	님께서는 돌아오시려나?

▌감　상

이백이 26세가 되던 해, 동정호(洞庭湖)와 상수(湘水) 일대를 유람하고, 금릉(金陵)과 양주(揚州) 지방을 거쳐 남방의 안륙(安陸)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이백은 남방의 새로운 풍광을 접하면서, 「자야오가(子夜吳歌)」를 네 수 남겼다. 「자야오가」란 기원 4세기경에 진(晉)나라의 자야(子夜)란 여인이 애절한 사랑 노래 「자야가」를 지은 데에서 유래한다. 이백은 사계절로 구분하여 「자야오가」 네 편을 지었다. 위 시는 가을에 해당하는 셋째 수이다.

■ 역사속의 오늘

▶ 남영호 침몰 - 1970년 12월 15일 ◀

1970년 12월15일 새벽1시27분, 남해 여수 인근 소리도 앞바다. 초속 3.7m 서남풍을 탄 파도가 제주도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남영(南榮)호를 덮쳤다. 인명피해 326명,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피해자가 308명이었다.

남영호의 비극은 44년 후 일어날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해운 당국의 수송 수요 조절 실패와 선주 측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정부당국의 무책임까지 겹쳐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정원 302명에 탑승인원은 338명. 그나마 62명은 승선 명부에도 없었다. 화물 적재량 초과는 더 심했다. 정량인 130t보다 네 배 이상인 543t을 실었다. 남영호가 서귀포항을 출항한 시각이 14일 오후 5시께. 승객 210명에 연말 성수기용 감귤을 가득 적재한 상태였다.

과도한 선적으로 서귀포항을 출발할 때부터 배는 이미 왼쪽으로 15도 가량 기울었으나 선주는 더 욕심을 냈다. 세 시간 뒤 제주 성산포항에 들러 승객 121명을 더 태웠다. 문제는 감귤. 화물창고 2개가 채워지자 선주는 선적이 금지된 화물창고 지붕에 감귤 400상자를 쌓았다. 중간 갑판도 감귤 상자 500개로 가득 찼다. 만재흘수선이 해면에 잠겨 복원력을 잃은 상태로 성산포항을 나선 남영호는 사고 지점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바로 위기에 빠졌다. 먼저 강한 바람이 불며 갑판 위 감귤 상자가 갑판 왼쪽으로 기울며 허물어졌다. 선체가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선장은 속도를 줄였으나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해난 사고에 신속 대응해야 할 정부당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영호는 침몰 직전까지 긴급 구조신호(S.O.S)를 발신했으나 한국의 재난 기관 어떤 곳에서도 수신하지 못했다. 이후 사고 조사위원회를 통해 어업무선국에서 조난 신호를 수신했으나 무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승객 대부분은 남영호 침몰과 동시에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감귤 상자에 겨우 의존해 한 겨울의 바다를 견디던 생존자가 처음 구조된 시각은 새벽 5시20분. 부산 희영수산 소속의 80t급 어선 희영호가 여성 승객 1명을 구조해냈다.

그러나 희영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그저 눈앞의 생존자만 건지고 더 이상의 구조작업은커녕 사고 해역을 떠났다. 더욱이 희영호는 이 사실을 해양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표류하는 생존자들을 필사적으로 구한 쪽은 일본 어선 두 척이었다. 오전 8시 45분께 일본 어선들은 생존자 8명을 구하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일본은 이를 한국 해양경찰에 통고하는 한편 언론에 알렸다. 부산항 부두에서 남영호를 기다리던 가족들의 빗발치는 확인 요구에도 '보고받은 바 없다'던 해경은 일본 교도통신에 조난 사실이 기사화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의 구조선이 도착한 시각이 오후 1시께. 일본 순시선보다 4시간이나 느렸다. 뒤늦게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은 생존자 3명을 찾아냈다. 겨울의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12시간을 버틴 생존자를 비롯해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12명에 그쳤다. 다음날 정오 무렵, 정부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며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89m 해저에 가라앉은 선체 인양도 기술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포기해 버렸다.

사고 직후 추가 비리가 드러났다. 폭풍으로 출항이 두 차례 지연되며 승객과 화물을 구겨 넣은 게 처음이 아니었다. 선주는 일상적으로 직원들에게 화물의 두 배 이상을 싣도록 강요했다. 남영호는 화물칸 하나로 인가받은 여객선이었으나 객실 2개를 터서 화물칸을 3개로 만들어 사실상의 반 화물선처럼 많은 짐을 싣고 다녔다. 말단 공무원이 단속의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고위관료들과 밀착된 관계였으니 일상적 불법운행이 가능했다고 전해진다.

사고를 조사한 부산해난심판원은 재빨리 '화물 선적이 잘못돼 선체가 불안정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의 과실과 과적 과승을 방조한 항해사와 사무장의 직무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관련 정부 부처는 제 살 길을 찾아 책임을 회피했다. 교통부와 내무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끝에 두 부처의 하위직 공무원 몇몇이 구속되는 선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의 책임 소재는 마무리됐다. 군 출신이었던 내무부 장관 박경원과 교통부 장관 백선엽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제주-부산 항로 예측을 잘못해 과적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중간 책임자들도 전혀 문책 받지 않았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 아래서 민인들의 자유가 억압받고 맹종을 요구받던 시대였다. 문책은 민인의 몫이었다. 은방울 자매가 부른 가요 '밤 항구 연락선'은 '쌍 고동에 허공 실어 침몰된 남영호야'라는 가사가 들어가 국가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보상 문제는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남영호조난수습대책본부가 책정한 사망자 보상금은 1인당 69만원에 불과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으로 환산한 화폐가치로는 오늘날 1300만원에 해당)

1971년 1월8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남영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공식 언급을 남겼다. "남영호 사건은 관계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된 데서 일어났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기강 해이이므로 기강을 바로잡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하라."

1971년 6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장은 금고 3년, 선주는 금고 6개월에 벌금 3만 원, 통신장은 벌금 1만 원이 선고되었고, 삼우운수 영업 과장, 영업과 직원, 부산지방해운국 부두관리사무소 직원, 해경 통신과 직원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2년 2월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는 선장에 항소심에서 선고된 금고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하였다. 사고 직후 검찰이 고위 공무원과 해운회사 간의 유착 고리, 정부의 늑장 대응 사유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이들 말단 공무원만 기소했을 때 언론들은 "'송사리'만 잡고 수사 매듭"이라며 비웃었지만 그 송사리들조차도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일 때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

47년 전 오늘 새벽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고를 더듬을수록 세월호의 비극이 떠오른다. 구조적 요인과 화물 과적, 여객선의 반 화물선 개조, 가장 먼저 탈출해 살아남은 선장, 국가의 무책임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배움으로 기억되지 못한 역사는 비극으로 되풀이 된다.

오늘 다시 남영호 시대의 민인이 될 것인가, 새 시대의 민인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이다.

■ 도농상생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효 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30g * 5매 >

◇ 시 중 가 : 4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빌겠습니다.

○ "호박고구마" 판매 안내

우리 연구원 전형윤 회원(한국고전학연구소 협동번역팀 연구원)의 부모님께서, 안면도에서 직접 농사지으신 순종 "**호박고구마"**입니다.

- 환　　경 : 모래가 섞인 황토밭에서 자란 "**호박고구마"**입니다.
- 무 농 약 : 농약을 뿌리지 않고 가꾼 "**호박고구마"**입니다.
- 보 관 법 : 보관은 거실이나 주방에 놓고 드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호박고구마"**는 온도에 민감하여 5도 이하에 보관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 가　　격 : 10kg 한 상자 25,000원(시중소비자가 : 30,000원)**

*** 주문방식 : 063-286-3005(사무국), 010-7137-6148(행정실장)**

*** 입금계좌 : 505-13-0330989(전북), 예금주 : 한국고전문화연구원**